



근대 경제학의 주류인 신자유주의는 오스트리아 출신 영국 경제학자 F.A 하이에크의 사상에 직접적 뿌리를 두고 있다. 그에 의하면 소득 불평등이야말로 시장의 자연적 질서이며 경제성장의 원동력이다. 그리고 경제성장이야말로 불평등을 해소하여 국민 복지 증,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974년 미국 경제학자 리처드 이스털린은 경제성장에 따라 국민소득이 높아져도 곧 행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1950년부터 1970년까지 일본의 국민소득은 일곱 배 증가했지만, 오히려 삶의 만족도는 국민소득이 최하위권인 방글라데시와 비슷한 정도로 떨어졌다는 것이다. 이를 '이스털린의 역설'이라 부른다. 이 역설이 과연 일반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1998년 영국의 런던 정경대학에서 행복지수 순위를 발표할 때에 의하면 측정대상 54개국 중 1위가 방글라데시이며 세계 최대 경제강국인 미국은 46위, 한국은 23위로 소득과 행복은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신경제제단(NEP)의 국가별 행복지수(NPI)에서는 1위를 중남미의 코스타리카가 차지했다. 10위권 가운데 도미니카(2위), 자메이카(3위), 쿠바(7위) 등 중남미 국가가 9곳이나 됐다. 베트남이 5위로 아시아에서는 홀로 10위 안에 들었고, 세계 8위였던 부탄은 올해는 17위가 됐다. 선진국권에서는 네덜란드가 43위, 독일 51위, 일본 75위, 미국은 최하위권인 114위였다. 우리나라는 68위였다.

그런데 가난하지만 행복한 나라로 알려진 부탄의 행복도가 최근 왜 떨어졌는가? 그 원인으로 근래에 산간마을까지 보급된 TV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불교교리에 따른 검소한 생활과 농사일만 알던 사람들이 TV로 판 세상을 보게 됐고, 그에 따라 하고 싶고 갖고 싶은 욕망이 많아진 것이다. 부탄에는 얼마 전에야 정신과 의사가 처음으로 개업했다고 한다.

국가 행복지수는 측정하는 기관이 어디인가, 어떤 기준으로 변수를 잡느냐에 따라 물론 큰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최근엔 '생태환경' 변수도 중요한 측정기준이 된다.

코스타리카는 20년간 생태 보전에 힘써왔다. 전 국토의 25%가 자연보호구역이다. 5년 전 동부해안에서 유전이 발견됐지만 시추를 금지하고 대신 수력·풍력 발전에 투자했다. 쿠바도 생태환경정책을 중시하고 있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여기서, 쿠바(cuba)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자. 쿠바 사회가 가난하면서도 일체감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이 생활에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배경에는 의료제도를 통해서 사회적 유대감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1990년대부터 냉전이 종결되고 소련이 붕괴된 후 사회주의국 쿠바를 엄습한 경제위기와 식량위기 속에서 당시의 피델 카스트로 정권에게 부과된 정책과제는 적은 국가 예산 하에서 국민복지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과제였다. 이와 같은 시기 미국과 영국, 일본 같은 선진국에서는 신자유주의가 주장하는 '작은 정부' 노선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복지비를

저소득 계층에도 만족스런 의료보험 정착돼야

높은 GDP 보유해도 국민이 만족해야 부자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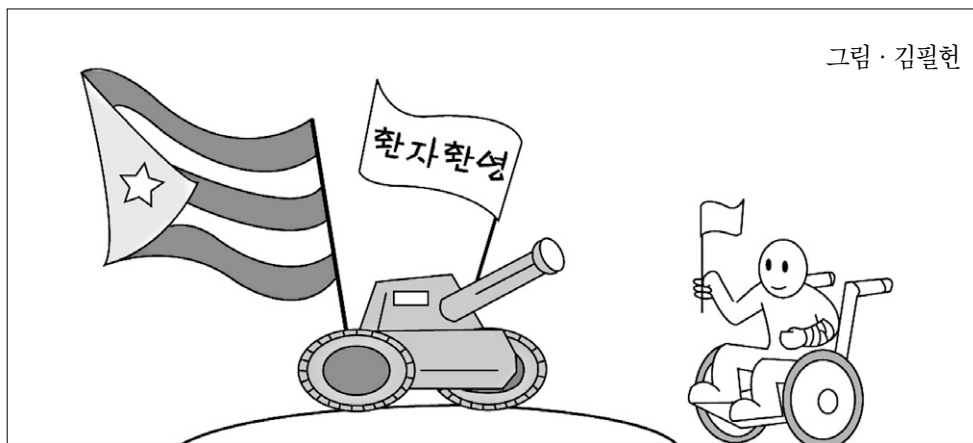


그림 · 김필현

사각하고, 의료분야에 시장원리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는데, 쿠바는 오히려 이와 반대방향의 길을 선택했다. 의료복지를 시장화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1차 진료부터 철저히 수행하는 방식으로 의료비를 억제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대략 100세대 마다 한 사람의 가정의(醫)를 배치하고, 일상적인 건강관리나 생활지도를 해서 가벼운 건강체크나 질병은 가정의가 해결하도록 했다. 그리고 가정의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병이나 부상은 지역의 진료소로 보내고, 거기서도 치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 큰 병원으로 보내는 시스템을 만들었던 것이다.

물론, 이런 제도가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의사나 간호사를 대량으로 양성하여 공급할

필요가 있고, 또 의료관계자의 인건비를 억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 점에서 사회주의국 쿠바에서는 의사일자리도 화이트칼라(사무직)나 블루칼라(공장노동자)의 임금에 기본적으로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정책을 실현하기가 자본주의국 보다는 훨씬 용이했을 것이다. 그 결과 지금도 쿠바는 중남미국가 중에서 가장 두터운 국민의료복지 수준을 가지게 되고, 주변국의 난치병 환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 예컨대 베네수엘라 같은 산유국으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는 호혜관계를 구축하는데까지 성공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렇게까지 해서 쿠바가 일종의 '의료인국'을 하려고 생각한 것은 단순히 토착산업이 없다는 이유만은 아니다. 그 밑바탕에는 풀뿌리 의료체

제를 만들어 내 쿠바사회 전체의 일체감 내지는 행복감을 고양하려는 목적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실사병에 걸려도, 혹은 노령 때문에 생활에 지장이 생겨도 국가 사회로부터 냉대를 받는 일이 없다는 것이 인간에게 큰 안심을 주고 사회적 연대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었으리라 생각된다.

근년에 공개된 마이클 무어감독의 다큐멘터리영화 '시코(Siko)'는 시장경제원리가 판을 쳐온 미국의 의료제도를 비판한 작품인데, 그러한 미국의료제도를 비판한 축의 취재대상이 된 것이 쿠바였다.

쿠바의 및 싼 배나 높은 1인당 GDP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국에는 국민(醫)의료보험제도가 없어 중류의 노동자계층은 만족스런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 미국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마이클 무어 감독은 영화속에서 쿠바의 수도 하바나의 병원으로 데리고 간다. 물론 쿠바에게는 국책 선전이 되기도 했겠지만, 이들 미국인은 외국인인면서도 전액 무료로 고도의 치료혜택을 듬뿍 받는다. 작품 속에서는 그들이 감동하고 또한 감사하는 모습이 소개되고 있다.

마이클 무어 감독의 메시지는 명확하다. 도대체 왜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 미국보다도 카리브 해에 떠있는 가난한 사회주의의 소국이 사람들에게 두터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 그리고 행복한가 라는 것이다. 최근 영리병원제도 도입 등의 정책문제가 등장한 우리나라에도 많은 시사점을 던지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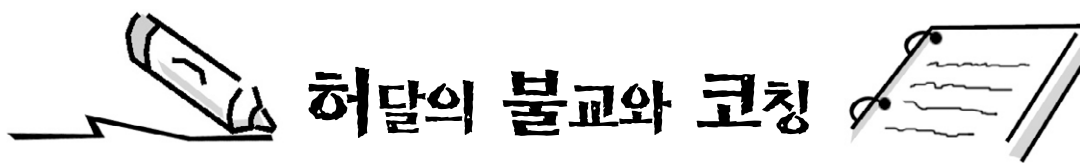
■ 인문대 경제학과 교수

26 무주상으로 살기

벌써 여러 해 전의 일이다. 아침 명상을 끝내고 아내가 간단한 아침 요기를 준비하는 동안의 짧은 시간이 그냥 허비하기에는 너무 소중한 보여 책 한 단락을 읽어보려고 시작했다. 책 권 필드라는 명상가가 지은 <마음에서 이어지는 길(A Path with Heart)>이라는 제목의 좋은 책이었다.

'성공하는 리더의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리더십 과정에서는 사명서 작성 시간에 모의 명상을 하는 시간을 갖는 경우가 있다. 과정진행을 하는 코치의 유도에 따라,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면서 누군가 가까운 지인이 돌아갔다 하여 그 장례식에 참석하는 장면을 머리 속에 그려본다. 여러 친지, 동료, 가족들과 고인의 떠남을 나누고 차례를 기다려 관을 들여다 보니, 이게 웬일? 거기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 그 즐거움이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방금 들은 고인에 대한 찬사, 애도, 사랑, 그리움... 당신은 이것들을 부끄럽지 않게 받을 자격이 있는가? 당신 자신은 과연 돌아다 보아 부끄럽지 않은 성취한 삶(fulfilled life)을 살았는가? 이런 모의 체험으로부터 삶의 여러 역할에 대한 자신의 좌표와 목표를 찾는 작업이 그의 도하는 바이다.

어느 날 아침 읽은 책의 단락에서 책 권 필드는 쉽고 그려면서 더 존엄한 명상 제목을 제시했던 것이 기억난다. 자신이 이제



생을 마감하는 순간에 도달했다고 가상하라는 것이다. 그 명상 속에서 이제까지 지내온 일생을 펼쳐놓고 자신이 한 행위 중에 '두 가지 선행(善行)'을 마음 속에서 꺼내보라는 것이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내 경우는 쉽지 않았다. 이력서에 써 지는 굵직굵직한 일들은 일단 첫 번째 자격 심사에서 탈락되고 만다. 부끄러워하는 마음 사이로 어렵게, 두 가지 아주 사소한 일들이 떠올랐다. 그 작은 일들의 속성이 바로 '마음과 이어져 있는 일'이었음을 알았다. 무주상(無住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친절하지만 아주 준엄한 방법이다. 그리고 보니 '무주상'이라는 제목으로 쓴 글이 한 편 있었다. 80년대 후반 물 불 모르고 일에 몰입할 때의 일이었다. 애써 이뤄놓은 프로젝트의 성과를 남이 알아주지 않아 어떤 소견에 양양불락하다가, 어렵사리 얻은 어렵פות한 깨달음에 대해 너무 큰 제목을

붙여 쓴 글이었다. 아래에 겨두질미하여 인용해 본다. (前略) 우리 아이들은 나더러 울보란다. 슬픈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우는 것도 어른으로서의 창피한 일인데 TV 뉴스를 보다가 도, 심지어는 만화를 보다가도 눈물을 글썽인다는 것이다.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는가?

'방향족시설 프로젝트'는 기술자로서 나를 두 번 울게 한 프로젝트였다. 사업계획이 연례행사처럼 반복되어 오던 걸프와의 합작경영시절, 뻔히 반러될 계획을 오펙이처럼 매년 다시 제출하던 우리들도 오기명어리었다. 회사의 경영주체가 바뀌고 이 사업이 이사회에서 새 회사의 첫 사업으로 승인되던 날, 사업타당성 보고를 마치고 배석했던 나는 붉어지는 눈시울을 감추려 하지 않았다. 첫 번째 눈물. 성취감 속의 기쁨의 눈물이었다. 시설의 개념설계, 기술선 선정, 투자지출규모 확정 등이 끝나자 일은 프로젝트 집행 부서로 옮겨지고 나를 위시하

신입생 모집

칭기스칸 대학교
chinggis khaan university
한국캠퍼스 한국승가대학 세계화교육

- 학사과정(4년제) : 사회복지학과, 정치외교학과, 불교학, 경영학과, 교육학과, 철학과.
- 석사과정(2년제) : 4학기 ■ 박사과정(3년제) : 6학기

특 전 (한국불교재단)

1. 전세계 대학 편. 입학 인정.
2. 대학 등록금 저렴함 (타. 대학의 학비절반)
3. 장학금 제도 및 공부시간 여유 있음.

학교법인 김해대학교육원
kaya university life education
불교종립 한국승가대학 불교문화대학원

- 전문과정 (1년제) : 종교학(불교문화학과)
- 불교문화 강좌내
불교학, 수행학, 종교학, 경전학, 철학, 의식학, 법회학, 교리학, 경영학, 생리학.

문의 : 학무처 0502-788-0808. 055)338-0050. 011-801-8197